

Sector Comment

K-POP Rise & Release

2025.10.22

장지혜 엔터·미디어·음식료 02-709-2336 / jihye.j@ds-sec.co.kr, 강태호 연구원 02-709-2666

K-pop R&R. 더 높은 목표를 향해, 베이비몬스터의 비상

K-pop R&R은 K-pop 아티스트의 활동 성과 및 업종 내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자료입니다.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의 성과(Rise)와 음반/투어 일정 공개 소식(Release)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

■ 베이비몬스터(BABYMONSTER, 베몬) 미니 2집 <WE GO UP> 초동 55만장 기록. 글로벌 라이트 팬덤 확대

- 베몬 미니 2집 <WE GO UP>은 10/10 발매 후 초동 55만장 기록. 10/21 기준 25년 국내 걸그룹 초동 Top 8
- 직전 앨범인 정규 1집 <DRIP>(24년 11월) 초동 67만장 대비 -18% 감소한 실적에 팬덤 정체에 대한 우려 있음
- 그러나 이는 베몬이 25년 1월부터 첫번째 글로벌 투어를 진행하며 국내 활동이 줄었기 때문으로 판단
- 베몬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(서울)는 24년 12월 10.8만명에서 25년 10월 3.7만명으로 감소
- 베몬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(글로벌)는 10/21 기준 695만명(+4% MoM)으로 신보 발매 후 증가세
- 베몬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10/21 기준 1,030만명(+250% MoM)으로 데뷔 1년 5개월 만에 천 만명을 돌파
- 또한 베몬은 10/16 Mnet '엠카운트다운'에서 10월 셋째 주 1위를 기록하며 탄탄한 라이브 실력 증명

■ YG엔터는 블랙핑크의 본격 글로벌 활동 속 후속 IP 라인업의 성장과 MD 강화로 IP 레버리지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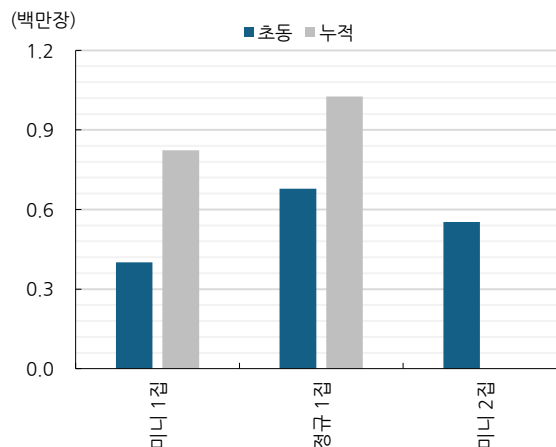
- YG엔터는 메가 IP 블랙핑크의 글로벌 투어 실적이 3분기부터 인식되고 후속 IP 성장으로 실적 성장 기대됨
- 최근 블랙핑크는 22년 정규 2집 <Born Pink>이후 3년 만의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돌입
- 블랙핑크 외에도 후속 IP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의 글로벌 팬덤 확대가 나타나고 있고 26년 신규 IP 추가도 기대
- 또한 YG엔터는 공연 MD, 팝업스토어 등 MD를 강화하고 있어 IP 수익 레버리지 효과도 확대되는 중

그림1 베이비몬스터 미니 2집 <WE GO 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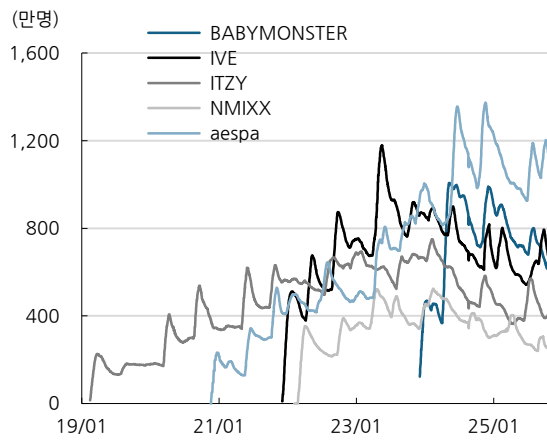
자료: YG엔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베이비몬스터 앨범 판매량 추이(국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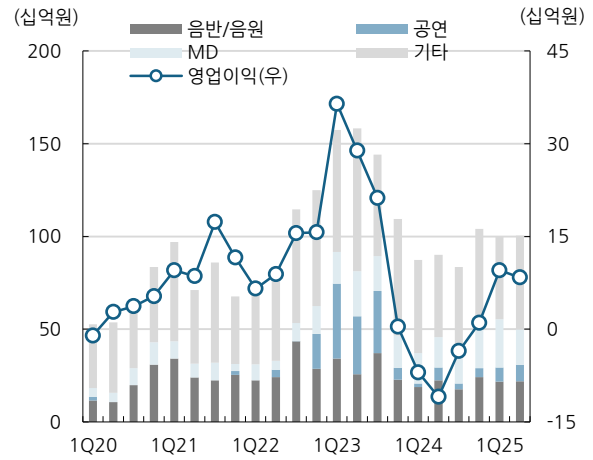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터차트, 써클차트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스포티파이 월간청취자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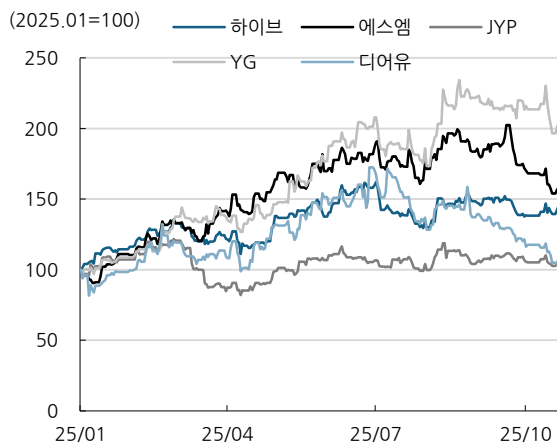
자료: Spotify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YG엔터의 분기별 실적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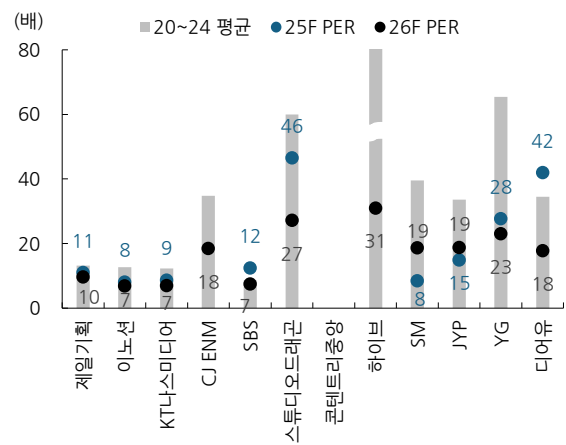
자료: YG엔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주요 엔터 기업 주가 추이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미디어-엔터 PER 밸류에이션 비교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